

이교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③

진짜 윤회하는가?

2005.09.09 / [향 산 기자]

질문 7. “당신은 ‘우리가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아무 증거가 없다.”

이것에 대해 답하기에 앞서, ‘사후 생명’에 관한 기독교와 불교의 이론을 살펴봅시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느님이 새로운 영혼을 창조하고 그것이 인간이 되어 자기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죽고 난 뒤 그 영혼은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당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실존(existence)의 원초(原初)를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각의 존재(being)는 자기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고 새로운 실존(existence)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죽음과 재생의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존재(being)가 열반을 성취하지 않는 한 영원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존재가 열반을 성취하면 그의 이해력[understanding] 그리고 그 결과 행동이 변하고 이것이 재생의 원인이 되는 과정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생존으로 다시 태어나는 대신에, 그 존재는 열반을 성취합니다. 열반은 (자극에 반응하기 위해 존재하며, 성장하고 노쇠해지며, 시간과 공간(時空) 속에서 움직이는) 실존(existence)이 아니며, 그것은 전멸(全滅)·적멸(寂滅)이 아니므로 ‘실존하지 않는 것(non-existence)’도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반을 성취하지 않는 한 각 존재(being)의 실존(existence)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열반을 이룰 때까지는 존재하기 위해서 실존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이 두 가지 이론 중 어느 쪽에도 확실한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쪽의 이론에는 불교 쪽 이론에 없는 논리적·도덕적 문제점이 있어서, 후자[불교 이론]를 좀 더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실존(existence)을 순환적인 것으로 보는 데 반해,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과정의 실례를 자연에서 전혀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자연계의 모든 과정들은 순환적입니다. 봄·여름·가을과 겨울의 계절이 지나가지만 다음 해에 다시 돌아옵니다.



비가 내려, 바다로 흘러가고, 증발하여 구름을 만들고 이것이 다시 비가 되어 내립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여러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죽으면 그 몸이 부서지고 흩어져 그 요소들을 땅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땅에서는 식물과 동물들이 그 요소들을 흡수하게 되며, 우리가 다시 그것을 먹어 몸을 만들어 냅니다.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돌고, 심지어는 우리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은하계까지도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윤회(rebirth)에 관한 불교 쪽의 이론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순환적 과정들과 조화를 이루는 데 반해서, 기독교 쪽의 이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도들은 “하느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창조하였으므로, 우리가 그 분을 믿고 그 분에게 복종하면 그 분이 우리를 구원해줄 것이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태아 수백만 명이 해마다 자연 유산되고 갓난 아이 수백만 명이 사산되거나 태어난 지 2년 안에 죽어가는 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수백만 명은 심지어는 가장 단순한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 지체를 간직한 채 태어나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이 예정해놓은 계획에 어떻게 꼭 맞는단 말입니까? 새 생명을 창조하고서 그 생명이 태어나기도 전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죽게 만드는 데에 있어 하느님이 무슨 목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존재[생명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천당으로 갑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까? 만약 하느님이 마음에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들을 창조하였다면, 그 계획이 매우 불명(不明)하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또한, 이 세상 사람들 중 대다수는 비-기독교도이고 심지어 기독교도라고 하여도 모두 구원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것은 ‘하느님이 창조하는 모든 영혼들 중 상당 비율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모두를 구원하겠다’는 하느님의 계획은 길을 매우 잘못 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한 기독교 혹은 불교 쪽의 이론 중 하나를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불교의 교리가 좀 더 호소력이 있고 수긍할 만 합니다.

질문 8. “열반은 성취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것을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실제적이다.”

열반을 성취하는 데에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것[輪廻]’이 우리들에게 많은 시간을 줍니다. 우리가 그것[열반의 성취]을 금생(今生)에 이루지 못하면 다음 생에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만약 진실하게 원하면, 1주일 이내에도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맛지마 니까야』 제 10경)

그게 사실이라면, 기독교도들은 “왜 모든 불교도들이 이미 열반을 성취하지 못했는가?”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묻는 것은, 세속적인 현상들이 그들에게 아직까지 큰 흡인력(吸引力)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찰력과 이해력이 점진적으로 그런 흡인력을 사라지게 하면서, 각자의 속도대로 열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한 사

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오직 한 차례밖에 없는 데 반해, ‘다시 태어남[再生, 還生, 輪廻]’에 관한 불교의 가르침은 ‘한 사람이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경전에서 말씀하듯이 ‘결국에는 모두가 해탈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사(不死; 열반)의 경지를 성취해왔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오늘이라도 이룰 수 있네.
하지만 정진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네.
(『長老尼經(Therigatha)』 제 513계송)

< 2005.09.09 14:02 / 조회수:136 >